

# 대통령실 “불법 파업 타협 없다”…민주노총 “6일 총파업”

화물연대와 두번째 교섭도 결렬  
유조차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지하철·철도 파업도 단호한 대응”  
3일 노동자대회…노정 대립 격화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전국노동자대회와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불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 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

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가량 대화를 나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 인천, 여수, 평택, 울산청 등과 영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방안은 영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부산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은 저급한 가짜뉴스”

민주당에 공식 사과 요구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부산엑스포-사우디아라비아 수주 거래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 기획관실이 전세계를 돌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한 총리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경

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최태원 SK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특사로 파견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민관합동으로 부산엑스포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에 마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지난 17일 회담을 거론하며 “항간에는 사우디 내음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격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 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 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상민 “시멘트 운송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행안부에 이태원 추모사업 TF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대응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법정부적응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암사 참사 관련 이 장관은 유가족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 내년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동 주최국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등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시작했다. 1차 회의 때는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증진 등의 의제를 놓고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이번 2차 회의의 첫날인 내년 3월 29일에는 공동

주최국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공동 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도하며, 각국 정부 각료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도 두루 참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를 통해 역대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 외교의 지평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의 공동 주최국 5개국은 이날 공동 발표문도 채택했다.

공동주최국들은 발표문에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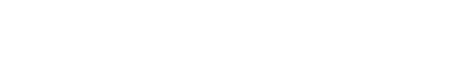
이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항구적인 번영,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 정상들이 화상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이어 각 공동주최국 내에서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대표들의 참석하에 하이브리드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현대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정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b>당일투어</b> 1인 134,000원~	<b>1박2일 투어</b> 1인 214,000원~
--------------------------	-----------------------------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